

끝까지 반성안한 고유정... “난 아니다”

지법 어제 고유정사건 결심공판... 오는 20일 선고공판

변호인 “전 남편 살해 우발적... 의붓아들 살해는 소설”

검찰 “반 인륜적 범행 저질러 법정 최고형 사형 불가피”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7)이 선고공판을 앞둔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끝까지 피해자에겐 별다른 미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고유정은 10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20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주 사건도 그렇게 제 새끼(자식) 제 목숨을 걸고 아닌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 재판이 끝나고 고유정은 “이 몸통아리가 뭐라고 (전 남편이) 원하는 대로 다 했으면 제 아이

와 이런 기억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텐데 이렇게 오래 고통을 겪을 줄 몰랐다”면서 “제 몸이 뭐 귀하다고 그랬는지 그냥 그때 원하는 대로 내줬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텐데 나 때문에 아이가 아빠 잃고 엄마 잃게 됐나하는 그런 생각을 매일 한다”고 했다.

이어 “제가 믿을 곳은 재판부밖에 없다. 판사님들이 제발 한번이라도 다시 훑어봐 주시고 저 여자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봐 주시길”이라며 “언젠가는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고 버티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씨 변호인 측은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선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소설에서도 보지 못할 어불성설”이라고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종 변론과 최종 진술에 앞서 고씨를 상대로 수면제 등을 구하게 된 경위, 현 남편과 싸우던 도중에 뜬금없이 현 남편의 잠버릇에 대해 언급한 이유, 친아들이 아닌 의붓아들만 먼저 정주 자택으로 데려오자고 설득한 남편을 설득한 이유 등을 캐묻자 고씨는 “기억이 잘 안난다”거나 “화제를 전환하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답했다.

특히 고씨는 의붓아들을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재판부의 질문엔 격앙된 목소리 “제가 죽었다면 (의붓아들이) 그렇게 예쁜

모습으로 꿈에 나타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고씨의 선고공판을 열어 형량을 정한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아들 앞에서 아버지(전 남편)를, 아버지(현 남편)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무참히 저질렀음에도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한편 고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의붓아들 A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이어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감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도 받고 있다. 이상민기자

도교육청 ‘합격→불합격’ 사과했지만... ‘단순 실수’서 임용시험 실기평가 공정성 논란 야기

제주 국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결과 발표 과정에서 합격자가 바뀌는 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이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실기평가 공정성을 놓고도 의문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교육청은 10일 “2020학년도 제주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합격자를 변경해 재공고한 것에 대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실수를 인정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앞서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7일 오전 10시쯤 중등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가 이날 오후 5시쯤 체육 과목 합격자 명단을 수정해 재공고했다. 이 과정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던 응시자 1명이 불합격 처리됐고, 불합격했던 1명이 합격자 명단에 올랐다. 업무 담당자가 전산 시스템에 시험 점수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2차 시험을 본 14명의 ‘실기평가’ 점수를 누락했고,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합격자가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업무 상의 실수’로 문제가 발생했다며 고개 숙였지만 이번 사안은 임용시험 공정성 논란으로 옮겨붙고 있다. 일부에서 임용시험 실기평가의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탓이다.

이번 시험에서 체육 과목에 응시

했다가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은 A씨는 “수영, 허들, 축구와 같은 종목에서 숫 성공률, 기록 등의 수행 결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응시자가 실기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았다”며 “양적 평가보다 질적 평가의 배점이 높다고 해도 다른 수험생보다 3~7점이 나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응시자와 가족은 이날 도교육청을 항의 방문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며 채점기록표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실기평가는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을 무조건 1등으로 가리는 게 아니라 평가위원들이 일정한 채점 기준을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시험 관련 정보 공개 안에도 명시된 것처럼 2차 시험의 문제지와 모범답안, 채점기준표 등은 비공개가 원칙이기에 현재로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사안에 대해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이날 주재한 도교육청 주간 기획조정회의에서 “이번 일은 교육행정 신뢰의 문제이기에 엄중하게 받아들여 반면교사 삼겠다”며 “자체 감사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김지은기자

“부동산 매입하려는데”... 꼬리잡힌 사기범

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A(50)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 동문시장 내 수산물판매점에서 1000만원 상당의 주문서를 작성해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현금 30만원을 빌려달라며 편취하는 등 유사한 수법으로 수산물 판매점, 의류가게,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을 돌며 17명에게 303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30분쯤 제주시 노형동 소재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매입하려고 왔는데 휴대전화와 신분증, 지갑 등을 잃어버려 현금을 빌려달라”고 하다가 범행을 눈치챈 공인중개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검거됐다.

당시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는 동일한 범죄로 10만~20만원의 소액 사기 피해를 봤다는 소문이 전파된 상황이었다. 김현석기자

선불금 사기 40대 구속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선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선주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

년 한림 선적 유자망 어선 S호(29t급)호와 Y호(44t급)에서 1년간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선주로부터 2000여만원 상당의 선불금을 받은 뒤 어선에 승선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신종 코로나 직격탄... 등빈 성산일출봉 주차장 신종 코로나 영향으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10일 제주의 대표 관광지인 성산일출봉도 관광객이 자취를 감추면서 주차장이 텅 비었다. 강희민기자

신종 코로나 예방법 사칭 ‘스미싱 문자’ 주의

경찰 “인터넷 주소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법을 사칭한 ‘스미싱’(인터넷 주소를 누르게 해 개인정보를 탈취해가는 범죄) 문자 메시지가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난본부의 명의를 사칭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증상발현

시 상담·문의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과 함께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되고 있다. 정부기관에서 발송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 문자에는 인터넷 주소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경찰청은 스미싱 문자에 나온 웹 주소를 누르면 불분명한 홈페이지로 연결돼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려면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와 제한될 수 있게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또 모바일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나 URL 주소는 클릭 하지 말아야”고 당부했다.

스미싱 피해를 막을 예방 수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민기자

서귀포시 도내 최초 ‘대형구급차’ 도입

도내 최초로 올해 서귀포시에 대형구급차가 도입된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 일환으로 다수사상자 이송이 가능한 대형구급차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번 도입되는 대형구급차는 산소탱크 및 호흡보조 장비, 자동심장충격기 등 전문 응급처치 장비를 탑재한 대형 구급차로서, 경상환자 6~7명과 특별한 안정이 필요한 환자가 누워서 갈수 있는 침대형상 1개, 소방요원 등 10명 내외가 탑승이 가능하게 제작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화재와 교통사고 등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현장에서 즉각적인 응급처치는 물론 동시에 많은 인원을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해진다.

서귀포는 같은 시각 다른 응급상황 발생시 환자 이송을 위한 공백이 생기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이태윤기자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한번의 시비로 - 밑비료+추비+농약+병해예방(친환경)

● 페르카의 제반효과 비료대(평) 100-500원 - 1포(100~500평) 사용

- 잡초의 경감
- N2O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 높은 저장성
- 페르카
-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 강력한 라임효과
- 뿌리혹병의 경감

취급 품목 아미노산, 휴믹산, 풀빅산, 해조박, 유황제품 (50~100)평 사용 100%발효 : 유박, 퇴비제품

관주요면 시비용 칼슘제, 색상, 당도, 뿌리발근, 생육촉진, 역제제, 광합성지원제품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그랜드보청기

경자년 보청기 파격 대할인!!
보청기 전 브랜드 50~60% 대할인!!

살충제 흔저 전화 주셔서! 기다렸습다!
보청기 착용 그랜드 첫 방문 고객
배터리 무료 증정(25,000원 상당)

- 타사 보청기 보상판매 서비스
- 무료 청력검사 및 방문서비스
- 고급 보청기 1+1(하나더드림 행사)
- 모든 보청기 A/S 및 무료점검 서비스
- 70세 이상 어르신 보청기 지원금
-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 그랜드보청기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064-725-9275

서사라사거리 동쪽 100m 행복뽕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감귤 신제품 분양

유라실생(노지, 하우스) 정상착과시 전허부피과 발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노지관망 일만원 판매) 의심되는분은 전화주시면 노지 하우스재배 하는 분 알려 드리겠습니다.

만감류

레드향(무독) · 천혜향(무독)
한라봉 · 황금향 · 미니향
아마니스 · 제라몬(레몬)

조생

유라실생 · 궁천(궁천변이지)
하례 조생 · 히로시마 7호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사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증묘

010-2691-1883